

일본의 프로덕션 · 디지털 인쇄기 시장 동향

-Info Trends 예측 리포트 발표-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불황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글로벌 제조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직격탄을 날렸다. 2007년부터 2008년 가을까지 출하대수, 출하금액 모두 전년실적을 상회했던 프로덕션 디지털기도 2008년 가을 이후 그 기세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그 큰 이유가 저조한 경기로 인한 신규 IT 투자의 삭감에 있는 만큼 2009년의 성장성도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흑백기기의 2009년 판매대수 예측은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전년비 성장률이 마이너스이지만, 컬러기기 시장보다는 하락폭이 작은 -7.8%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출처: 월간 Multi function printer 2009년 7월호〉

(주)Info Trends(대표이사: Tsukamoto Takuro)가 일본의 프로덕션(업무용) 디지털 인쇄기의 시장 예측 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디지털 인쇄기의 판매대수는 2007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던 2008년 2만1108대에서 2012년에는 2만 409대로 감소하고, 반면 판매금액은 2008년의 726억5300만엔에서 2012년에는 856억5800만엔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8년의 일본 프로덕션 디지털 인쇄기 시장의 판매대수는 2만1108대로, 전년비 성장률은 -19.6%였다. 판매금액은 726억 5300만엔으로 전년비 성장률은 판매대수보다는 감소폭이 적은 -14.5%였다.

2008년 6월에는 'DRUPA 2008'이 개최되면서 이때를 전후하여 신제품이 등장하여 디지털 인쇄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9월부터 현실화된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의해 2008년 후반에는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었다.

일본에서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장이 순조롭게 확대되어 왔지만, 2008년 하반기 불황의 영향은 지대하여 그 후 시장의 기세는 완전히 급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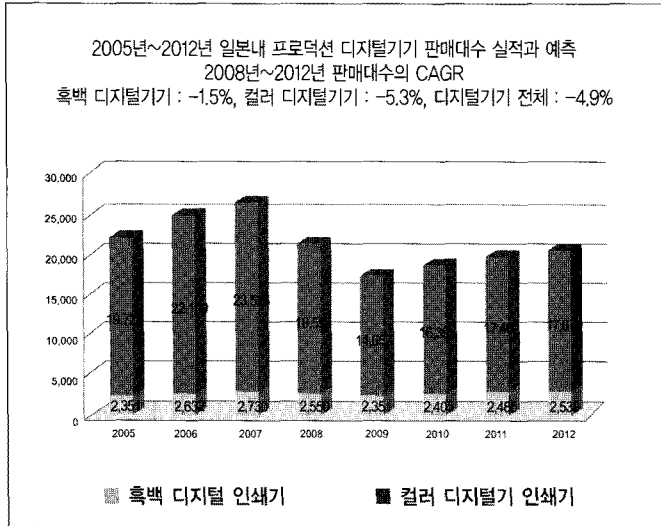
2009년에도 일본의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계속 억제하여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nfo Trends에서는 2010년 이후에도 미국 경제의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경제가 앞서 나가 회복해 나갈 경우에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쇄기 시장은 소량 로트(Lot), 단기 납기로의 대응, 인쇄물 생산의 효율화 등의 우위성에 의해 2007년~2008년 상반기에 급속히 성장했던 시장인 만큼, 설비투자자의 의욕이 회복된다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도표는 2005년~2012년의 프로덕션 디지털기기의 판매대수 실적과 예측이다.

2008년~2012년의 전체 CAGR(연평균 성장률)은 -4.9%로, 컬러기기는 -5.3%, 흑백기기는 -1.9%로 예측된다.



이번 컬러기기 시장 규모 예측에서 전체 출하대수가 크게 감소하고 앞으로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측한 요인은 주로 저속 컬러기기(인쇄 속도 44PPM이하, 컬러기기 출하대수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함)의 수요가 앞으로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량 이용자인 편의점이나 복사업자, 중소기업의 기업내 인쇄 부문에서는 구모델의 교체가 2007년까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앞으로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설비를 갱신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2~3년은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거꾸로 중고속기기는 인쇄업자의 도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수요는 높아 경제상황이 안정된다면 판매대수는 확실하게 2008년 수준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진다.

2008년~2012년의 CAGR은 45~69PPM 기기 시장에서

10.7%, 70PPM 이상의 기종 시장에서 37.7%로 예측된다.

흑백기기의 2009년 판매대수 예측은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전년비 성장률이 마이너스이지만, 컬러기기 시장보다는 하락폭이 작은 -7.8%에 머물 것이다.

단, 흑백 디지털인쇄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흑백 프로덕션기기 시장 전체가 크게 확대할 요소는 적어, 2010년부터 시장회복기에 들어가도 그 후의 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무용 복사기의 큰 성장성은 일본내수도 기대할 수 없다. 그만큼 잠재적인 성장성이 예상되는 일본내에서 프로덕션(사무용) 디지털 인쇄기에 대한 제조사의 기대는 크다.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은 국내의 상관없이 제조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저조한 결과를 낳았다.

2007년부터 2008년 가을까지 출하대수, 출하금액 모두 전년실적을 상회했던 프로덕션 디지털기도 2008년 가을 이후 그세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그 최대 이유가 저조한 경기로 의한 신규 IT 투자의 삭감에 있는 만큼 2009년의 성장성도 큰 기대는 할 수 없다.

『광학세계』 원고모집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세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학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안내 ●●●

1. 원고 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이달의 독자, 칼럼 등
2. 원고 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 마감 : 수시 접수중

* 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

• 연락처 :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편집부 • TEL: (02)3481-8931 • FAX: (02)3481-8669